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없는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속도에 직면해 있다. 서울 어느 마을은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경우도 각 가정마다 하나씩만 낳아 잘 기르자는 것이 시대적 조류가 되었다.

심지어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도 적지 않다. 한편 출산시기가 지나면 전철에는 노인분들로 가득하다. 소득수준의 상승과 의료 혜택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몇 년 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된 이래 1983년에 대체인구수준인 2.08명에 도달하였다. '인구대체수준'이란 부부가 평균적으로 2.1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0.1명을 더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여 출산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보충하기 위함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5명에서 1.7명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0.92명이 적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불자 세상보기

송 일 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출산·고령화 화두풀기

1.196만명이 부족하게 태어남을 의미한다.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에 부심하다. 저출산의 사회 문화적 여파는 잠시 논외로 치고,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수를 줄이고, 고령화를 가속시켜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 증가와 사회보장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야말로 저출산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 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후적인 대응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가지 경로를 거치게 된다. 출산과 관련하여 존재했던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단계가 교육인데 상벌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 역시 많이 개선되어 왔다. 문제는 교육을 받은 후 거

쳐야 할 단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서 우리 나라 여성은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적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노인'이 그 답이다. 미래의 노인 세대는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은 결국 노인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평생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십수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배우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수 또는 다단계 정년퇴직제 등을 통해 여러 일에 종사하며 여러 번 퇴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전적 전환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올해 부처님오신날 불축기간에 상징성 지닌 몇 가지 행보를 보여 주었다. 천주교 성가정 입양원 방문과 5명의 사형수에 대한 수계식, 그리고 불국토 화마당에서의 시각장애 체험 등이 그것이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으로서의 첫 시도로 앞으로 조계종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가정입양원 방문으로 이웃종교와의 평화로운 공존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남다른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에게 수계함으로써 불교의 진정된 가치를, 시각장애 체험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 역할이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불교로서는 당연히 지향해 나아가야 할 일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불축기간의 다짐이 일회성 이벤트 아닌 빈틈없는 실행으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더 낮은 곳' 향하는 불자되자

타 종교의 장점을 배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관스님이 방문했던 천주교 성가정입양원에서 불교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즉각 대응하는 순발력과 진정성을 가진 봉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 사무람성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되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사설법'을 저들이 실천하고 있음이 아닌가.

법행 당시 무종교였던 사형수 57명 가운데 불교에 귀의한 사람이 10명. 개신교와 천주교에 귀의한 사람이 50명이었다는 통계에서도 포교의 적극성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낮은 곳'이 바로 종교가 입할 자리이며 그 낮은 곳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이 종교의 사명임을 누가 모를까?

불교 안에서도 감동적인 현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종단 차원의 일과성 행사가 아닌, 종단 차원의 현장성 지닌, 그래서 사부대중 모두가 낮은 곳에서 동사설의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총무원장 스님의 불축기간 행보가 그런 자각과 실천행으로 전 불교계에 확산됐으면 한다.

■ 김경자(칼럼니스트)

이렇게 들었다

인권과 사명감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인권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한 판사의 권위주의적 언행으로 인해 법원일선직 직원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당직근무에서 발생한 착오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식사는 물론 화장실도 가지 못하며 7시간 동안 판사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내부통신망에 올린 직원들의 항의글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면서 대법원과 법원노조가 대립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노조가 "직원을 7시간 내도록 감금하고도 반성은커녕 판사만을 감싸는 행정처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사법의 상징 대법원 내에서 이용환 대법원장을 면담하려는 직원들과 경비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로 확산됐다.

유학중인 한 판사가 법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의 글은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올바른 관제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한 계장님이 송곳을 들고 기록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주인님이 할 일을 왜 계장님이 하느냐'고 말을 했더니 '우리 재판부 일인데 어느 누가 하던 어머니'고 답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었다"며 "판사들이 일반직 직원을 바라보는 눈과 인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화엄경>에서는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구절이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다스리는 양어(良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박봉영(해부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석탄일이 아니라 '부처님오신날'

4월 30일 서울에서 벌어진 연등의 불결에 동참하면서 우리 불교가 이렇게 커졌구나 하는 마음에 벅찬 감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일년 중에 이렇게 불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 날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되돌아가는 차안에서 시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문득 의문이 들었다. 방송뉴스 아나운서나 교통MC들 가운데 아직도 '부처님오신날'에 대한 용어가 정확하게 정착되지 않았는지 들춰보았다.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 정확한 용어로 알고 있는데 말려나 불교 사이트의 여러 곳에서 '석탄탄일' 또는 '석탄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아직도 혼란스럽다.

불교종단이나 불충위원회가 좀더 신경을 써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없도록 차체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대수(서울 은평구 불광동)

운문사 유치원 꼭 이루길

운문사가 경산에 지으려하는 부설유치원 불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다. 취학 전 아동을 키우는 젊은 불자들이라면 자녀의 유치원 선택은 늘 고민거리다. 이제 막 의식이 싹트는 아이라면

더욱 그렇다. 7살인 딸아이는 지난해까지 아파트 단지의 관인 어린이집을 다녔다. 종교색이 없는 곳이라 안심했는데 어느 날 저녁시간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부부는 기겁을 했다. 다행히도 인근에 불교유치원이 있어 아이는 울해부터 그곳을 다니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부분은 서양에서 들어온 몬테소리 같은 교회사유아 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자부부의 선택의 폭은 너무나 좁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운문사가 진행하는 유치원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운문사 뿐만 아니라 다른 비구니 승가대학들도 부속 유치원을 만들어 불자가정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윤경식(대구 동구 도평동)

초라한 동국대 100주년

동국대가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준비에 분주한 듯하다. 그러나 현대불교신문 576호에 실린 동국대 기념행사 소식을 접하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수계대법회, 학술세미나, 연등축제, 타인캠프 봉안식, 시화전 등 행사는 다양하지만 여전히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규모 또한 집안단지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학 100주년에 걸맞은 비중 있는 프로

●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그랜은 찾아보기 어렵다. 선교사업에 의해 세워진 비슷한 연혁의 다른 대학들에 비해, 동국대는 불교의 정신과 민족혼을 응축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100주년을 맞아 동문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고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사 마련이 어렵다.

박인득(서울 중구 만리동)

님의 등불

홍로(해신노전실)



중생이 부처의 목을 보고 놓지 아니하니
아... 시비세간 어스름을 보아도
그날은 어찌도 오늘도 간절히 슬피
이른 마음 배를 누려 갔으니
여러 중생 고통마다 헤어나 건지시켜
님의 몸 서슴지 않고 떠돌았어 부처이 바치시네
평히 앉은 도화지에 불이발을 말하지 마오
붉은 꽃 배년죽여 원망·지옥 바라지 않게
함류공생 구급물 부르면 어디든 가야 하시니
그 서원 어찌 끊어 있다 하시리
아... 끝없이 떠돌아 붉은 하늘 기둥 바치시어
서원·동원 붉은 꽃 감수신 화염을 모두 끊으시어
자정불이 중생의 목을 조이리
처처에 님의 등불 영원한 오물일세
나무 깨물 보은 보살

연대 민명 심민섭
문지마 방화 소방시설은 완벽하고?
부처님이 물다

제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학인모집
초급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대칭, 받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소, 상단예배, 불공식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초보범음, 범패)
고급과정 6개월: 요잡바라,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사십구재, 예수재, 수족재(전문적 범음·범패)
모집: 수시모집
매주강의요일: 화, 목(오후 5시~7시)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어렵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수료 후 수료증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원광사 회장 겸 강주 김도진 회장
한국불교범음회 의식교육원
051)554-1518 / 011-849-0961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지공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리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우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에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로공시)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1-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공공사

빙의현상(이유)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놓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영가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여기저기 다니며 놓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연락처 0311736-3734
해원사 치세요 0311732-3790

천무후무한 본문 법회의식 대전 출간!
1. 총 57가지의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2. 의식내용과 문장구사력의 석문의 감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특히 의식 내용의 계승은 무비모작이다.
3. 법회행자는 물론이고 일반 스님이나 신도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4. 의식에 스님의 범명, 당호, 처사의 범호, 비구니의 범명, 보살의 범명, 예술인의 범명 범호가 수천개 수록 되어 있다.
5. 이 본문 법회의식대전은 행하면 수도요 수행이요 보살도의 공덕을 성취한다.
6. 이 의식책은 1천 8백수십 페이지다. 책값은 30만원으로
7. 다음의 뛰어난 작품은 육문제를 주서로 쓴 수량품과 한자와 한글과 지장경담은 디자인이 특이하고 세계의 없는 독특한 육문(五文)체이다.
8. 한문 수량품 탭 세로 68cm×가로 28cm 한글 수량품 탭 세로 72cm×가로 29cm 지장경 탭 세로 90cm×가로 29cm 불(佛)자 세로 40cm×가로 29cm 용(龍)자 세로 32cm×가로 27cm 달마 세로 36cm×가로 27cm
9. 이상의 서체와 필체는 뛰어난 특수한 서체로서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다.
10. 의식책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는 佛.용.달마 중 1가지로 50점과 붉은 주서(朱書)로 제작한 탭 1점을 더 드려서 약 150여만원의 이익을 보게해드립니다. 의식책을 제외한 여러 작품이 서체가 뛰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다면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이 작품은 부정치고 점안하였음.
법회의식대전